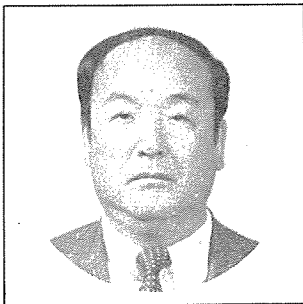


美國軍事시설 視察記

“世界平和유지 위한 意志의 現場확인”



許 埴

〈大韓火藥技術學會회장〉

이번의 美國軍事施設 시찰은 駐韓美軍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美軍司令官 L. C. Menetrey대장의 초청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시찰단구성은 美國과 友好團體인 韓美協會를 비롯하여 韓美親善協會등에서 추천해서 美軍司令部가 선정하여 직능별로 기술사, 교수 기업주 및 前職공무원등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2년전부터 연례행사로 시행하고 있으며, 主目的은 우리에게 美陸海空軍의 군사 및 방위시설을 보여주고 잠재적인 침략가능성을 저지하기 위한 방위태세를 확인시켜줌으로써 友邦들에게 세계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우의를 다지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시찰단은 金元基 前副總理를 단장으로하여 예정대로 6월23일 서울을 출발하여 공식행사를 7월2일 華府에서 모두 마치고 해산하여 각자 임의로 귀국하게 되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美軍의 조직체계를 간단히 살펴본다. 組織面에서 軍政과 軍令으로 양분할 때 前者는 國防長官 밑에 陸海空軍 各長官이 있고, 그 밑에 각 참모총장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軍의 총사령관인 大統領이 임명한 합참의장이 있으며, 國防部長官과 同格으로 휘하에 태평양함대사령부 및 NATO등 해외주둔군을 두고 있다.

따라서 駐韓美軍司令部는 태평양함대사령부 밑에 있으며 美工兵團極東地區(COEFED)는 본부가 Hawaii에 있는 美工兵團太平洋地域에 예속되어 國防部陸軍長官 工兵團揮下에 있는 것이다. 이 工兵團은 美聯合政府機構에 建設부가 없으므로 내무, 교통, 농무성등 특수건설공사는 해당부서에서 관할하나 사회간접부문(infrastructure) 예컨대, 고속도로등은 자기 고유의 COE Code를 가지고 政府建設工事を 도맡고 있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라할 수 있다. 우리 建設業體가 중동지역에서 건설공사때 COE 규정을 따르는 것도 한 예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後者인 軍令에 대하여 언급하자면 大統領이 합참의장에게 軍令을 내릴 수 있는 동시에 陸軍長官揮下에 있는 各軍 참모총장에게도 직접 軍令을 내릴 수도 있고, 또한 참모총장은

上司인 陸軍長官에게 보고하게 되지만 大統領에게 직접 보고할 수도 있는 二元化 체계이다.

그리고 國防長官 및 陸海空軍長官은 민간인이어야되고 그 휘하의 참모총장만이 현역군인으로 보하게 되어 있는 文民政治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二元化되어 있는 조직을 펜타곤이란 한지붕밑에 뭉쳐 놓고 政略과 작전 지휘계통의 종속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現役軍人中에서 최고의 수뇌는 합참의장이며, 우리나라 軍兵力 通稱 60만명에 비하여 美육군 150만명(해군 80만명, 공군 50만명, 해병대 20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태평양함대 사령부

(CINCPAC) 시찰

23일 오후 10시 서울을 출발했으나 日差關係로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것이 같은 23일 오전 9시였다. 대기하고 있던 美軍用車便으로 Waikiki Beach Camber Hotel에 여장을 풀고 오후에는 眞珠灣軍港視察에 나섰다. 군용쾌속정에 몸을 싣고 해병대소령의 안내를 받으며 軍港에 정박하고 있는 여러가지 군함들을 보면서, 태평양전쟁개전당시 일본군의 공중해상기습작전의 戰史를 들어가면서 잠시 땀을 식혔다. 지난날의 진주만유럽관광코스과 다를바 없으나 군함에 직접 들어가서 이모저모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나 할까? 미해군의 主力兵力 ¾가 이곳에 있다는데, 과연 태평양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바다에서 바라보는 하와이섬의 여러도비경, 무드를 망각한 Kawuai섬의 4계절, 꽃을 수놓은 듯한 정원의 풍경이 있는가하면 Big의 애칭을 가지고 있는 하와이섬은 텍사스를 연상할만한 大牧場과 불모의 용암황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상록의 섬들을 함께 관상하면서 “동백장”에 돌아와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다.

24일 오전에는 제1해병원정여단공군부대(Marine Corps Air station)를 돌아본 다음 제25보병사단의 모의훈련을 참관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바 있는 본사단은 최근에는 팀스피리트

한미합동훈련의 주력부대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제2사단과는 쌍벽을 이루는 정예사단으로 일본의 자위대와도 자주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展示武器로서는 휴대용 유도탄발사기인 Stinger. 이는 4km내의 어떠한 목적물도 추적격파하는 소형화기이고 분당 60발을 발사하는 박격포, 곡사포등 우리에게 낯익은 지상전투모의훈련이었다.

다음으로 四星將軍이 집무하는 CINCPAC 사령부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사단본부보다도 못해 보이는 낡은 건물이 숲속에 자리잡고 있는데, 정보참모인 J. C. Clapper 소장의 안내를 받았다.

브리핑의 요지는 극동지역의 假想敵인 소련, 월맹 및 북한의 병역배치, 인접국인 중국의 해안 선군사시설, 그리고 미국의 우방국인 일본, 대만 및 한국의 병역배치등의 비교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였다.

특히 소련은 월맹 캄난만, 북한의 청진과 진남포에 군사기지를 두고 소련태평양함대가 순시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에 인도한 24대의 M19-31 Fox Hound전투기는 우리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군함 ○○호 선상에서 오른쪽이 필자



그리고 전시아래에 있는 Persia만의 미국의 보호는 원유수송에 있어서 미국의 도입량이 미국 전체량의 5%에 불과한데 비하여 한국은 50%, 일본은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해를 구하는 설명이었다.

연간 GNP의 6%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한국의 방위에는 미국이 필요하고 미국은 한국이 또한 필요한 만큼 그간의 불편했던 관계를 지양하고 예컨대, 작전권이양등 동반자의 입장에서 상호의존의 공동방위태세를 다져 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북한이 GNP의 10%인 250억불에 비하여 우리나라가 6%인 400억불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경제력 대비는 5대1의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로스앤젤스의 록히드,
맥도널 더글라스를 보고

6월27일 오전에는 록히드(LA : 15,000 종업원)와 맥도널더글라스(LA : 종업원 36,000)사의 전투기와 민간항공기 제작과정을 시찰하였다.

록히드는 1970년대 일본의 田中首相과의 뇌물사건으로 잘 알려진 장본인이기도 하다. 우리 해군과 구매교섭을 진행중인 해상초계기 P-3 orion에 대한 설명으로 이는 捕鯨砲, Rocket, Mines 및 Torpedoes등을 적재하는 최신형으로 알려져 있다.

이 맥도널더 글라스의 C-17 Cargo는 종전의 C-5에 비하여 활주로가 3,000呎 정도의 짧은 길이로 족하고 대당 1억불에 팔고 있다는 것이다. 맥도널더글라스에서는 군용기 외에도 민간여객기 그리고 미사일등을 제작하고 있다고 한다.

그중 맥도널더글라스 80여객기는 同種世界需要의 35%를 맡고 있으며, 앞으로1991년까지는 이미 주문제작의뢰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며, 최근 헬리콥터판매로 말썽을 빚었던 Hughes社를 인수한 회사이기도 하다. 造船業과 같이 대부분 인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전투기는 생산공정이 어느정도 걸리느냐고 물었더니 주 2.5대꼴로 제

품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브리핑데이터에 의하면 兩社의 규모가 大同小異한 것으로 1987년 결산내역의 매출액이 맥도널 134억불, 록히드 100억불, 순이익 맥도널더글라스 3.2억불, 록히드 4억불이었다.

여기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어디까지 와있는냐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1970년대 후반기부터 착수된 政府育成의 항공산업은 韓進獨走로 三星航空에서 제작해준 “엔진”에 미국에서 수입해온 대부분의 부품을 가지고 조립하여 制空號 戰鬪機 그리고 노드롭에서 부품을 가져다 조립한 경량헬리콥터가 고작이다. 최근에 大宇重工業이 F-16전투기, B-747등의 동체부품을 제작 미국에 계약납품하고 있으며 大宇시코키에서 국산 30%의 경량 헬리콥터가 제작 시판되고 있는 초보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기반이 되는 자동차공업은 歐美에 진출한지 오래이고 항공산업과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조선산업은 이제 造船王國인 일본을 양적으로 추월한지 오래이다.

맥도널더글라스의 工場視察中 三星航空에서 파견되어 研修中이라는 2명의 先任技師를 알게 되었다. 금년들어 後發走者인 서울항공이 韓進독주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맥도널더글라스 및 록히드라 해도 주요부품인 “엔진”은 英國의 “롤스로이스”를 비롯하여 瑞西, 瑞奧 및 西獨 등 외국에서도 구입 조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산업에 불가결한 최첨단의 통신기술도 어느정도수준에 와있는 우리로서 항공산업육성의 기반구축을 갖추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행되어야 할 항공Engineering을 육성하는 한편 造船에 이어지는 특화산업으로 航空産業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政府에서 추진중인 航空育成法이 제정되어 航空宇宙産業育成과 造船産業이 함께 육성발전되기를 期待하는 것이다.

美宇宙사령부 및 北美防空사령부
(美·加共同運營體)

6월29일 아침 7시 30분 콜로라도 스프링시에

서 서쪽으로 10km거리의 Cheyenne M. T. 산속에 있는 NORAD를 찾는다는 남달리 마음설레이는바 컸다.

지난 1960년 筆者가 Colorado School of Mines 대학원 재학중 이 부근의 지질조사 답사시 NORAD의 지하공동 굴착시공이 한창인 때라 공중에는 B-29가 24시간 하늘을 지키고, 지상에는 군인들의 삼엄한 경비로 민간인으로서의 얼씬도 못하던 곳을 이제 專門技術士로서 공식방문하게 되다니 자못 감회가 깊었다.

더우기 坑口에 들어서니 1966년 준공, 공사비 149백만불, 施工社 Utah Construction & Mining Co.라는 礎石表示를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다. 上記 Utah건설회사는 1951년 筆者가 大韓重石上東鑛業所에서 근무시 韓美重石協定에 의해 國務省추천으로 上東에 11명의 기술자를 파견한 契約會社(P.M Mr. Allhur Kendal, Michigan 大卒)이며, 3년간 고운정 미운정이 든 낮은 會社로 나의 젊음을 불태웠던 기억이 되살아 나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Cheyenne山의 높이는 600~7,000m, 坑口の 標高가 2,000m이다. 그속의 250,000平方呎 即 7,000坪 넓이의 화강암으로된 地下空洞으로 서울운동장만한 크기의 면적에 1,400명이 3교대로 晝夜勤務하고 있다. 空洞의 내부구조는 터널로 거미줄을 이루고 천정은 견고한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Rock Bolt만으로 支保를 지탱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Cemented Shot Crete를 하고 있다. 그리고 花崗岩帶라 지하수가 많이 나와 약500,000Ga의 저수탱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냉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터널속의 모든 통신장비는 기초에 스프링쿿손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의 모든 문은 그중 철문인데 Filter를 겸하고 있어 핵폭탄과 화학전에도 견딜수 있게 해놓았다. 이는 마치 2차대전때 건설해 놓은 瑞典, 瑞西 등에서 보았던 Civic Shelter 地下空洞과 흡사하였다.

NORAD의 三大義務인 Missile Warning, Air Defence, Space surveillant의 심장부인 상황실에 들어가보니 大韓建設會館大講堂만한 크기에 10



▲ 태평양함대사령부에서

명의 실무진이 각자 지역별로 감시하고 있는데, 각본소와 교신을 하고 있으며, 准將이 이를 종합 분석 NORAD 4星將軍에게 보고하고 있는 곳이다. 어떠한 소형비행체로 저공비행도 모두 탐지 추적할 수 있으며 추적즉시 인입기록판에서 비행체의 모든 성능과 방향, 속도등 제반자료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의 비행체탐지 후 대통령의 재가까지 얻어 4분내에 응사조치가 가능하다. 蘇聯發射의 핵폭탄이 美本土에까지 도달하는데는 최단 8분이 소요됨으로 영토밖의 상공에서 격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응사조치는 각 미사일기지에 명령을 내리거나 필요시는 이곳에서 직접 원격조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지금 우주에는 미국의 인공위성 7,180개가 선회하고 있으며, 소련의 인공위성은 일일4회 지구를 선회하면서 미국을 감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학창시절 이후 다시 찾은

美空軍士官學校

1960년대에 주말이면 학용품, 담배등을 교내구매점보다 더 싼값으로 사기 위해서 가끔 들렀던 곳인데, 당시 건설중이던 교회가 이제는 이교장의 명소로 용자를 들어내고 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답게 감리교, 유대교 및 천주교성당

등이 각각 분리되어 있다.

이곳 體育會館의 지하5층까지가 태양광선이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空士는 4년제로 入學生徒는 1년에 1,500명을 모집하나 중간퇴교생이 생겨 전체생도는 4,500명이 된다는 것이며 생도들의 학비는 전액 국비이나 임관한 空軍少尉의 월급 5,500불의 1/2정도를 지급받고 있다고 하며, 이는 미국에서 대학을 갓나온 신입사원 초봉 약 2,000불에 비하면 파격적인 대우이다. 女生徒도 男生徒와 똑같이 배우고 같이 침식을 하고 있다는 안내교관의 말이 흥미로웠다.

어느날 졸업을 2개월 앞둔 남생도가 여생도에게 구애를 하다가 발각이되어 퇴교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만큼 규율이 엄하다는 것이며 훌륭한 파이롯트양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휘관이란 인간을 만드는데 교육의 이념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펜타곤이란 애칭을 가진

國防省을 가다

브리핑은 공보관의 펜타곤에 대한 안내설명으로 시작되었다. 펜타곤이란 국방부의 애칭으로 통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건축구조가 5각형으로 건물높이도 5층, 구조물의 중심부에는 5각형의 정원을 만들어 23,000명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5Acre통로의 총연장이 50리 그리고 펜타곤의 최고 책임자인 國防長官은 4星將軍인 各軍參謀總長을 거느리고 있는 관계로 계급장없이 5星將軍이어서 5란 숫자에 초점을 맞춘것이다.

각방의 내벽은 한팔정도의 두꺼운 콘크리트로 시공되어 웬만한 공격에는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게 되어 있으며, 방도 복잡하고 기구 또한 복잡하여, 여기서 일하는 직원도 1년 이상 근무해야 제대로 이해할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納稅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일반관광객을 받고 있으며, 외국의 공식방문객도 월4회 정도 받고 있다는 것이며, 특히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인 행사를 위해서 美國은 세심한 방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강일로에 있는 소련의 極東軍事力은 현재로서는 한국, 일본, 필리핀등 友邦에 대해서는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는 설명이었다.

여기에 일익을 담당할 日本의 방위계획은 5년 내에 60척의 구축함과 P-3대잠수함용 전투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며, 1990년부터는 국방예산액으로 보아 소련, 미국, 일본의 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대해서 한국으로서는 지난날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우려가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격용이 아닌 방위력으로 크게 우려할 바가 못될 것이라는 미국의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다.

최근 필리핀에서 군사기지 임대료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는 상호방위협력조약에 의한 우해적인 것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수는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며,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쌍방간에 원만한 타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 브리핑을 들은 후 질문할 기회를 주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현재의 南北韓의 군사력비교에서 北韓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휴전선일대에 소련의 최신 전투기를 증강배치하는등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데, 駐韓美軍과 관련시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공보관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駐韓美軍의 필요성은 民主黨 大統領후보도 공약하다시피 확고한 것이며, 다만 유지비를 어떻게 분담하느냐가 앞으로의 협상과제이다. 韓國의 안보는 극동방위의 최우선과제로서 한국, 일본, 대만 및 필리핀등 우방들과는 점진적으로 방위력 증강에 노력하고 있으며, 美·中 관계는 우방은 아나 선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中國과 北韓間의 군사협력을 低調한 편으로 유도하고 韓美, 美日등 정기적방위협의기구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라는 설명이었다.